

광주·전남 설 민심 4대 키워드는

나흘 간의 설 연휴 기간에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주요 관심사는 국민의당(發) 정세 개편과 6월 지방선거 일자리 문제와 최저임금제 등 정·관계 현안과 쇼트트랙, 스퀘려통 남북 단일팀으로 상징되는 올림픽에 모아졌다.

우선 '녹색 돌풍'의 주역으로 광주·전남을 종횡 기반으로 해온 국민의당이 내분 끝에 창당 2년 만에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무소속으로 분화되면서 지방선거와 맞물려 더불어민주당, 바미당, 민평당, 자유한국당 등 신(新) 4당 체제에 대한 당부성 의견이 적지 않았다.

광주·전남의 유일한 여당 의원인 이계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18일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높았고 (4당 체제와 관련해서) 여·야 간에 너무 싸우지 말고 화합과 협력을 통해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면 한다는 바람이 컸다"고 전했다.

이형석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긍정적인 과정 거쳐 좋은 후보 내세우면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격려의 말씀이 많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대표를 지냈던 박지원(전남 목포) 민평당 의원은 "문 대통령은 잘하고 있고, 안철수 전 대표는 xxx라는 반응이었다. 민평당에 힘을 실어줘야 문 대통령이 호남에 잘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민평당이 뿌리내리기 위해 호남 대안 세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반응이었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워진

정세개편·지방선거·일자리·경제·평창 등 화두

민주당 "文대통령·민주 선호도 높아...압승할 것"

민평-바른미래당, 대안정당 역할론·기대감 강조

지방선거 "힘 있는 여당 찍어야 vs 일당 독주 안돼"

데 대해 아쉬워하며 몇몇 이탈한 의원들을 배신자로 보는 의견도 많았다"고 말했다.

정병완(광주 동남갑) 민평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대 반사이익을 노리는 지지는 공감을 사신에 있는 반면 민평당에 대해서 민주당 일당 독주로는 호남발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민평당의 역할론과 기대감을 강조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같은 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정부에 협력하되 호남에서는 강한 경쟁을 주문하는 이들이 많았고, 바미당을 택한 호남권 의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많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에 합류한 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부정적이고 실망했던 민심이 설을 계기로 점차 기대감으로 바뀌는 분위기였다. 바른미래당이 호남과 국가를 위해 어떤 성취표를 낼 지 관심이 꽤 높았고 격려도 많았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당대표 비서실 국장을 지낸 설정환씨는 "자유한국당을 사멸시킬 힘이 민주당에는 없다. 바미당이 역사를 쓰느냐 국민의 심판을 받느냐 한국 정당 사상 최초의 동

서화합 정당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행보에 달랐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직자 출신 A씨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실망감은 확인사살 하듯 견고해진 느낌을 받았고 민평당에 대한 기대 역시 찾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반면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당 지지로 이어지고 있지만 불안감은 여전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전직 당직자 B씨는 "대통령 잘 하고 광주는 잘 살고 싶지만 (민주당이) 오만하면 안된다"는 게 지역민들의 메시지였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에서 누굴 찍을 것인지, 누가 적인자인지에 대한 의견은 숨겨진 정치 지형의 변화와 88올림픽에 이어 30년 만에 다시 열린 올림픽 열기에 가려 예상보다 많지 않았지만 선호도 갈림은 뚜렷했다.

고령층 사이에서도 "그래도 힘 있는 여당을 찍어야 한다"는 의견과 "비록 호남당이 아니지만 민평당에 힘을 실어줘야 일당 중심 폐단을 막을 수 있지 않겠냐"는 입장이 병존했다.

청년일자리와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한 경제 문제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민주당 이계호 의원은 "경기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노력, 지원을 당부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했고, 이형석 위원장 역시 "경기회복과 일자리에 대한 성과가 조속히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평당 정병완 원내대표는 "지역 경제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올해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2%나 증가하고 청년실업률 또한 10%가 넘어 4년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원인으로 보인다. 포퓰리즘에 기댄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협했다는 의견이 적잖았다"고 말했다.

한국당 하현식 위원장 역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영세업체는 문을 닫는 등 지역 경제가 한겨울"이라며 "따무가내로 일자리 늘리기에 몰두할 게 아니라 중소기업과 서민이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주문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설 민심을 전했다.

이밖에도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과 북한응원단, 남북 관계,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 보복,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도 주된 화두였다.

광주시의회 김보현 의원은 "대통령과 올림픽, 남북 관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것 같다"며 "그래선지 지방선거에 누가 나온 다더라도 식의 대화는 많지 않았던 거 같다"고 전했다.

뉴스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손을 잡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

오늘 본회의서 법안 처리

2월 임시국회가 각종 보이콧으로 파행을 빚었던 가운데 원내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2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계류 중이었던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은 19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에 관해 합의를 이뤘다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최대한 법안 심사 처리하기로 했고 민생법안 국민생명 안전 관련 법안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것과 함께 각 상임위와 법안심사에 만전을 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펼친 바 있다. 한국당은 이에 모든 상임위의 법안심사를 보이콧하는 바람에 국회가 파행을 겪는 상황이다.

이용섭 '대통령 격려' 발언 진실 공방

이용섭 대통령 직속 전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이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밝힌 '대통령 격려' 발언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전 부위원장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광주 경제진흥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출마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줬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께서 그동안 고고 지방선거에 나간다는데 일부 우려가 있는데 패널리 말고 준비 잘해서 뜻 이루길 바란다"고도 말씀하셨다"고 공개했다.

이같은 발언은 현직 대통령이 특정 광역단체장 후보의 공로를 치하하고, 출마를 독려하고 승리를 기원했다고 비춰질 수 있어

진위 여부를 떠나 경쟁 후보들의 집단 반발을 사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해 강기정 전 의원, 민형배 광산구청장, 안향자 최고위원, 최영호 남구청장 등 민주당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 5명은 19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 전 부위원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을 공공연히 암시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평소 소신으로 비취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의 높은 지위를 이용한 아전인수 격 자화자찬"이라고도 말했다.

최 구청장은 "대통령께서 그런 발언을 실제 하셨어도 문제고, 만약 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뉴스스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설에 "민주당과 용호상박 안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규백 의원은 19일 바른미래당 소속 안철수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우리 당하고 용호상박은 안 된다"고 평가절하했다.

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물의 새아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우리 당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능히 그분을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정국 하에서 (안 전 의원이) 출마한다면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한다"며 "서로 간에 앞서서 서서히 해야 라이벌이 아난다. 그런데 연휴 전날 여론조사를 보니까 서너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한국지엠 노조 면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와 지도부가 한국 GM노조와 면담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